日露條約成立과 在京白派恐慌

간데족족쫏기는 그들의 신세 어번에는어대로발을향할가

비단일본과로국두나라사이의 외교사(外交史)에만중대한긔록이 될뿐만아니라 동양전국의중대한 변동을 이르킨반한일로긔본조약(日露基本條約)이 조인(調印)된것은 지난이십일이엇다 파렬될듯 하다가다시 성립될듯하다가 또다시파렬될듯하기를 전후 칠십여회에 삼사년동안을두고 끌어오든일로교섭이 최근에이르러갑자기급진직하의 세로성립이되자각방면각사람의이에대한관찰은 널려다 공산주의사상이던파될것을 두려워하는 일본의군벌(軍閥)、로령각디의 리권(利權)을 차지하고저 깃버하는 자본벌(資本閥)、로동자의 나라의 사상과 물품과 예술의 수입이 성취될것을 깃버하는무로는 경연、모도가 일희일경(一喜一驚)의 교향악(交響樂)을 듯는것갓다 이때를당하야 경성안에 잇는 아라사사람들은 엇더한늣김으로이번에 성립된일로조약을보고잇는가 일로조약이 그들에게 미치는영향은 과연얼마마한것인가바다로 수만리、륙디로수만리、고국을떠나 조선경성을 이라는도읍에와 잇는아라사 사람의운명은장차엇지될것인가

佛國과中國에 또다시표랑의길

가련한백파의잔명 경성에칠십팔인

현재경성안에 잇는아라사 사람은당국의 됴사한바에 의하면모다 칠십팔인이라는데 그들은『케렌스키—』정부시대의 부령사(副領事)두명을 위시하야 모다 백군잔당(白軍殘黨)으로 『쏘비에트』정부의위력이 당당한아라사본국에는 못드러갈운명에잇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공산주의의 편하요 일하는사람만 먹여준다는나라인 붉은아라사의 새세력에 쫏기여 아라사와반대인일본의세력아래로 표랑하여와서 겨우생명을 보존하고 잇다가이번에 제발 성립되지말기만 주야로 빌든일로 조약이 성립되매고만 실망락담하야 이곳도 오래잇지못할곳이라고 다시금 뎡처업는표랑의길을 써나랴고 벌서준비중이라한다 그중에는 친부령사이든『엘、에푸、페푸、토렐』은 안친한양을 차저—불란서를향하야 먼저길을떠나 리라하며가튼부령사로잇든『로토록키—』도합이빈을향하야써난다한다그리고그남어지사람들중에는중국상해남방구라파와불란서등디로갈사람들이잇고그도저도못할처디에잇는사람들은 그대로 이곳에떠러저잇스리라더라

同僚未亡人의 貯金까지橫領

심지어소제하는아이월급까지 알뜰히글거쓰고서종적을숨긴

電車課林逸根罪狀

경성뎐긔회사 뎐차과 승무원들이조직한 금주회의공금 만여원을횡령소비한우에 다시 공동구입조합판매뎐의 명의와 기타승무원들의신임을 저바리고 오만여원의 남의돈을소비하고 도주한 뎐차과서긔보 림일근(林逸根)의죄상은 날마다차차명백히 나타나는중인데이미발견된횡령액만하야도

△前監督朴英哲의未亡人이任置하고그利子로生活을維持하든貯金一千二百圓

△構內賣店에購入한義成洋靴店洋靴代金三千五百圓

△同上又新商店內衣代金一萬圓

△同上東昌精米所白米代金五千圓

△電車課長의名義로二千圓

△監督徐桂源의印章을僞造하야千圓

(以下 判讀不能)

차를모라 림일근(林逸根)의 첩의친정되는 집을 불의에습격하얏스나 역시림일근은 차줄길이 업서서 자동차갑만 허비하얏다고한다

兩氏辭職提出

사건책임으로

림일근의횡령사건에직접감독책임자가되는소송긔(小松崎)씨와 서긔보서계원(徐桂源)량씨는이십사일에무자권부(武者專務)에게사직청원을 뎨출하얏는대 일부 승무원간에서는 류임운동을이르키는중이라하며반대자도잇서서의론이분분하다더라

罷業保留

이번사건으로

林逸根의逃走를

인천에서경계

공금만여원을 횡령소비하고 어대로종적을 감춘경전(京電)뎐차과서긔보림일근 (林逸根) 의거처에 대하야는 당국에서엄밀히수색중인바 근일 인천(仁川署)에서는모처의 정보에의하야상해(上海)방면으로 가는긔선을엄중히 감시중이라더라 (인천)

新聞配達罷業

월급을올리라고 전주각지국에서

지난이십오일에 전주 신문배달부(全州新聞配達夫) 등은 일제히동맹파업(同盟罷業)을하엿다는데 그리유는월급이적어 생활

(以下 判讀不能)

신중한태도로써감정에흐르지안는운동을 이르키지안으면 마츰내삼십만시민의혐원가튼교통긔관을 두절케하야 대판(大阪)의동맹파공의아프고쓰리든뎔재번비극을면출할념려가엇겟다하는말이 유력하야 일시이문데는보류하고위선림일근의사건을해결키위하야 차장운뎐수중에서 위원삼십인을선출하기로되얏는대불원간선거를하리라더라

廿一時間勞働에 日給二三十錢

해주의국수직공파업사건 쌍방이서로강경할뿐이다

解決의曙光은渺然

팔개소의

해주(海州)읍내에잇는 팔개소의 냉면집국수직공백여명이동

(以下 判讀不能)

외에 주인들이자긔개인 가뎡의일까지 식힌다하야 이것을하지아니하겟다는 것이라 하는데 그날에 즉시조선문신문중에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량지국에서는 월급을올려주기로 하엿스며 둘재조건인 개인뎍고용은 본래부터그런일이 업서문뎨도되지아니하엿다 는데일인측권부는아즉

첫재요구도응락지아니하며둘재요구는일인이심한로동을식힌주인이잇다하나엇더케해결이될는지의문중에잇다하며 이번뷜이권주에서 처음일이라 이다음다른조합에도 만흔영향이 미치리라하야 더욱구든 결심을가지고 잇다하며한편으로는경찰의간섭이잇다더라(권주)

警察의干涉도

직공편은불응

一審대로十五年

간도에서군자모집한긔혼국

龍川에武裝獨立團

이십명이나타나음식을요구 밤중에경관대의비상한활동

海底까지搜索

南浦某重大事件

시내수처에가택수색 날마다바다밋까지됴사중

永遠한漂浪客

그들은어대로

『케렌스키』의 金塊德에

이때에사러온 백군의뎡사들

레닌紀念像

江華에染病

살길을곳곳에

말하여물으면

主義者二名檢擧

군산서의동연합동으로 가택수색후서류도압수

賃金을안올리면 일할수는업다

북행뎡(北幸町)새집으로백여명 직공편대표의말

最後까지對抗

주인편박유발

로동시간

自働車를몰아 북한산에서

連理枝

소요산인변역

危險한 漢江薄氷

어름만한는

西海岸結氷으로 仁浦間航海不能

이십삼일에것들어하야 결빙으로인한면이날것가다

水平社問題로 貴族奮起

유마리녀써가

갈돕會總會

강덕성에서개정

楊州에三處强盜

십칠일오다긋긔잡겟고실헌녀서

十字橋에强盜

海州에童話大會

강도급보

면칭전에

太極旗事件

歲tt간見孩가

雜貨店燒失

각지火災頻頻

玉仁洞에火災

全燒二、半燒一

龍井市에火災

面長排斥으로 面民大會

작인임시회를개최

阿峴北里에 鐵道自殺

원인은역시연애인듯

李大鼎은

어린정에에도

太平通에僵屍

종명자

집업는아이

파견된조선대표선수 =압록강에서=

運動競技

同胞의 拍手를자아낸 國境氷競經過

二十五日鴨綠江에서

特派員 李吉用發

第二回鮮滿氷上選手權大會는二十五日午前十一時부터國境鴨綠江鐵橋下에서열리엇는데例年보다朝鮮人의出場選手가만흐며日氣가매우따듯하이江의左右沿岸에居住한朝鮮사람이無慮數萬을헤아릴만큼『링』의周圍는人海를이루엇고江의北岸一帶에는人山을이루엇다盛況裡에五百米豫選부터競技가비롯되아朝鮮사람의入選이잇슬때마다同胞의拍手소래는 자못쓸쓸한國境江邊의 一帶를요란하게흔들고마랏다 競技經過와大會中大槪는아래와가트며그래도國境의쌀쌀한치위도무릅쓰고斯界老將高義書의勇敢한『스풋맨쉽』은特記할바이엇스며平壤의猛將朴惟敎君의病으로出場하지못함은遺憾千萬이엇다

『스켓』新記錄

加奈陀『센트온스』에서 擧行한 國際『스켓』大競技會에서『콘만』氏가五十五間를七秒五分의一로滑走하야世界의新記錄을지엇다 (나웬無電發)

豫選入選者

五百米前進 A組大西(朝鮮) 56秒2▲ B組東田(安東)56秒1▲C組小山(安東)55秒▲D組 森高(撫順) 57秒▲E組淸水 (朝鮮)57秒4▲F組日高(撫順)58秒1

五百米後進 A組一着 堀崎 (奉天)1分11秒2 二着水上(撫順)▲B組一着石原(安東)1分11秒 二着佐藤(撫順) ▲C組一着宇野(奉天) 1分11秒2 二着本山(安東)

一千五百米A組一着東田(安東)2分58秒3 二着淸水(朝鮮)▲B組一着森高(撫順)3分 3秒二着小山 (安東) ▲C 組一着大西(朝鮮)3分9秒2 二着本山

◇決勝經過◇

五百米前進 一着小山(安東)54秒▲二着東田(安東)▲三着淸水(朝鮮)

五百米後進 一着石原(安東)1分10秒 ▲二着堀崎(奉天)▲三着宇野(奉天)

一千五百米 一着小山(安東)2分53秒2▲二着東田(安東)▲三着本山(安東)

五千米 一着木谷(安東)10分45秒3▲ 二着 李福男(朝鮮) 10分 43 秒 1 ▲三着小林(奉天)

一萬米 四百米『링』을二十五週도는一萬米突競走에나온사람이安東選手三名과奉天一名과撫順一名外에朝鮮人으로는京城의李福男、金相洞兩君과平壤의朴惟超、金昶浩兩君이엇다 한두回가나아갈수록競走者는주러서드되여最後다섯박휘를남긴때에는安東縣選手三名과奉天撫順의二名에**朝鮮人은李福男君**뿐이엇다처음박휘부터李福男君은둘재또는첫재로돌다가마즈막一週를남기고는『스피드』를내이어先後를다투는지음에웃호로다름질中이든安東日選手는李君의발을스치어 (故意는아니라고辯名하나) 李君은앗가웁게도一着을다토다가그만最後의約三百米를남기고卒倒되얏다그러나다시이러나全力을다하야뒤를좃찻스나때는임의느젓다이때에十重二十重으로場內를에워싼**數萬의朝鮮人**은昨年까기볼수업든朝鮮同胞의出戰이라멀리安東縣과新義州로부터와서拍手에喝采는勿論 聲援이猛烈하다가그至境을當하니安東縣日選手의故意라고하야한때는殺氣가騰騰하얏섯다 朝鮮側代表의

『파울』이란抗議가 잇섯스나審判側은故意가아니라하야아래와가티宣言하다

一着木谷(安東)22分1秒2▲二着小山(安東)22分2秒4▲三着小林(奉天)▲四着李福男 (朝鮮)

千六百米리레 一着安東縣2分55秒2▲二着撫順▲三着朝鮮

大會가이와가티마친後成績에依하야各各優勝旗와銀컵授與式이잇슨바探點한結果安東縣팀이一等(二五點)奉天二等(五點)朝鮮三等(四點)撫順四等(二點)으로決定되얏다

鮮滿選手得点

氷上競技大會에서

	五百米	同後進	千五百	五千米	一萬米	千六百리레	計
安東	5	3	6	3	5	3	25
奉天	0	3	0	1	0	1	5
朝體	1	0	0	2	0	1	4
撫順	0	0	0	0	0	2	2
平壤	0	0	0	0	0	0	0
大連	棄權						

代表選手招待 本社新義州支局長獨孤佺氏는이번大會에出場한朝鮮代表選手一同을新義州食道園에招待하야晩餐이잇슨後二十五日夜特急으로歸京하다

延專氷競今日 延禧專門學校氷上競技大會는今二十七日午後二時부터郊外西江에서行한다고

가뎡부인 먼저미신을타파
우리가뎡의폐해에대하야 음력정월과가뎡부인 (一)

정월이되매 각가뎡에서 신교와 좃치못한구식부인들은일년의 운수를본다고 혹쌀되나 돈냥을 가지고 관신이집혓느니 별상이 집혓느니 하는요사한 무당에게 로가서무러보는일이만을것입니다 대개무엇이집혓느니무엇이들렷느니 하고제소위명한데 하는계집들은 모다 그것으로 사람을 속여먹고사는것들이라 의례히금년에는 무슨살이 잇스니 푸러버려야 한다는둥, 무슨 대감이 동티가 나서 화란이 생긴다는둥 삼신이 도라안저 자손이 좃겟다는둥 별의별소리를 다하야 그것을푼다는 명목아래 예금전과곡식을사취합니다 순량한 여러부인이시여 당신네들이 일년동안한집안의 화평이나 귀여운자녀들을위하야 복을빈다는 그마음이야말로 인정상 욕혹누괴이나그런것은 아모리한대야 아모소용이업는것이올시다 비로무뎌 장한사람도 만히잇섯습니다 압일을 안다는총명한 사람도만 잇습니다 그러나 실상자긔압일을 알앗다는사람이 소설가는데는 간혹잇스나 그런것은 모다 자미잇게 꿈여내인거짓말이요 사실이아닙니다 그런데 더구나 글자도변변히모르고 세상형편이 엇더케 도라가는지를 정이엇던지 도모지 모르는위인들이 엇더케압일을 알겟습닛가 더구나 눈에보히는 세상일도그러케 모르는데 엇더케사람의일도아닌귀신의일을 알수가 잇겟슴닛가?

무당이나 판수의무리들이 모르면서아는톄하고 전곡을 쌔아스려하면 이는 악한무리요 만일정말알고 말하엿다면 이것은 정신에병이들어 되는대로짓거린것입니다 그런즉 속히이는데쌔앗기는것도 분하려니와 미처서그리는데 덩더라 미처서전곡을줄 필요가어대 잇슴닛가 (계속)

학교순례(三) 진명녀학교
신학긔를마즈며 ═시내각녀학교소개═
수잘노키로유명한 산업장려사상고취

광화문통(光化門通)넓은거리에서 경복궁(景福宮)넷터의기인담을바른손편으로 끼고 올라가다가 영추문(迎秋門)을지나서멋거름을 더가면외인편으로 희색기동을 세운광장한 이층집이즐비히서잇스니 이것이 곳진명녀자고등보통학교(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이올시다 북악산(北嶽山)아래 조흔위치를 점령하엿고 검정치마에 힌줄을 쌍으로두른 쏫다운 소녀들이 학창(學窓)의 단꿈을 맷보는곳이올시다 이미 독자여러분이 아시는바와 가티 의미가 깁고력사가만흔 학교요 친절과·검박을주장삼아 학생을 가르치기로 일홈이 놉흔곳이올시다 긔자가그학교를 방문하든 이십삼일 오후에도 사무실에서는학생들의 구두를 조사하고뒤축이너무놉고 쌧쑥한 것을신은 학생에게 친절히이르는 것을보앗슴니다

創立沿革 (光武十年創立 嚴妃土地로經營 五百名卒業)

그학교는광무(光武)십년에엄준원(嚴俊源)씨가 창립하엿고 이재로부터 십사년전에 엄비(嚴妃)씌서 하사하신거대한금액을가지고재단법인(財團法人)을만드러서완전한고등보통학교가되엿고보통과를 확장식히며 기예과(技藝科)를 세웟슴니다 창립니래로 시내는물론이요 각디방에서 학생이 구름가티모혀들고 학교가 날로 발전함은 누구나다아는바이어니와 그동안 졸업생이고등과에 십사회로 이백여명, 보통과에 십륙회로삼백여명, 기예과에 십회로 륙십여명이 낫다함니다 졸업생들은 혹은동경에류학하고도라와서 현재 그학교의교편을잡은이도잇고 혹은 녀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를 마치고지방보통학교에 훈도로 간사람도 만타합니다 상당한 직업부인이 만흔모양이올시다 그학교 기예과는 삼년전부터 일홈을경성녀자학원(京城女子學院)으로 고치고 독립경영을 하게되엿다는데 교실이한마당안에잇고 교사가 서로 련락하며 아즉도 한학교와다름이업다함니다

現在狀況 (現在學生五百餘名、敎員四十餘名이다)

현재 그학교의학생수효는 고등과에일백 칠십팔명 보통과에 이백이십오명 녀자학원에 일백십사명이요 엄준원씨가 설립자겸교장으로잇고 선생이고등과에 조선인남자넷이요 보통과에 조선인남자셋,녀자셋,일본인남자둘, 녀자두분이요 녀자학원에 조선인남자넷,녀자셋, 일본인남자셋, 녀자세분이올시다 보통과는 삼학년부터 륙학년까지만 잇다함니다

將來抱負 (校舍新築、普通科廢止後高等全部計畫中)

압흐로 보통과를 폐지하고 고등과를더완전히 하야 녀자의 중등교육에 전심전력하겟다합니다교사(校舍)도 벽돌로다시 지을 예정이요 운동장도 더넓히여녀자의톄육을 대대적으로 발전식힐예정이지마는 아즉구톄적으로 작정된것은업다합니다

特色主張 (刺繡特才、産業奬勵思想을鼓吹함이特色)

그학교 학생들은 수(繡)를 매우잘놋는다합니다 기예과학생은 물론이지마는 본과학생들까지도 수잘노키로 유명합니다 그들의노흔수는 리왕세자뎐하(李王世子殿下)의 총애하는 머리병풍이 되엿고 사년전 동경평화박람회에서 각나라사람의눈을 놀래이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학교에서는 녀자의산업(産業)을 장려하며 몸마다 누에(蠶)치는법을 가르친다합니다『산업을장려하자 우리의살길은 이것이다 너희는소비(消費)하는자만 되지말고 생산(生産)하는자가되여라 만히생산하고 만히소비하는것이우리의할일이다』─이것이 그학교선생들이 학생을 훈련하는 중요한 말이라합니다 긔자는 그학교에서 비참한조선경제계를 바로잡을녀자가 만히 생기기를빕니다

세계각국풍속 ◇중국의혼인습관◇

그러케지은녹평니에신부를마커드려오는데 신부의장식도 펑상하야조선신부의 긔단장에 지지안슴니다 얼굴에는 여러가지로채색을하고 머리뒤에는 부채가튼 새것을꼿는등 야단입니다 잔치상을차려노코 신랑신부가 서로 술잔을나누는것은 조선과마처 한가지이나 신부가 조선처럼눈을내리깔고 태도를 쌔지는안습니다 례식을마친후에는 신랑신부가 여러손님압흐로 다니며인사를하고 차나과자나담배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새신부가피여주는담배를 바다먹게되는 사람은그날부상한광영으로알며이담배바들자격은 신랑집과쎄의가자별한 사람이라야합니다 쏘잔치먹으려가는 사람으로 보면조선서는간혹음식을해가지고가는사람도 잇스나대부분은 그냥가서어더먹지마는중국잔치군은돈이나 례물이나 무엇이든지가지고가게마련이올시다 (계속)

◇진명녀교전경과작년졸업식광경

자녀교육의방법 (七)
아동심리의여러가지변천

六、아이의마음

『마음이라는것은엇더한것이냐』─이것은 비로부터 학자들사이에 여러가지로 변론이분분하엿고 아즉도 의문중이지마는간단하게말하자면 물건을보고 생각하고 또는깃부다던지 슯푸다던지 무엇이가지고십다던지 하고십다던지 하는생각을 니르키게 하는것이 즉마음이올시다 그러면세상에잇는물건은어느것을물론하고 모다 마음이잇느냐하면 그것은그러치안습니다 디구상에는동물(動物)과식물(植物)이라는것이잇고동물은식물이가지지 못한 생각하는힘을 가지고잇습니다 이것이곳 마음이요그중에 고등동물일사록 생각하는힘이 더발달 되엿습니다 그럼으로사람의마음은 모든 동물중에가장 발달되엿고 그원인은 사람의생활은매우 복잡하야 바람이불고 비가오고 치웁고더웁고 원수가잇고서로 쌔아스려하고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복잡한 처디에서 자긔의 몸을보호하여 가려면반드시 여러가지 생각을하게되닙니다 즉사람의마음은 살어가는데 필요하기 위하야 생긴것이올시다

一、아이마음의발달순서

『다ー윈』의 진화론(進化論)을 보면계통발생(系統發生)과개톄발생(個體發生)이라는것은똑가티 싸라다니는것이라하엿습니다 어머니배속으로부터세상에나와서장성한사람이되기싸지는마치 세계천데의생물(生物)이밟고온 그계단(階段)을주려서되푸리한다는말이올시다 즉 아이의마음은 물고기나개고리 배암가튼 시대도잇고 즘생가튼시대도 잇서서 이러한모든계단을 지나고야 비로소 사람의계단에오르계됨니다 그러나 또한사람의계단까지 진보되엿다 할지라도 옛에는 야만인의시대가잇고반개인(半開人)의 시대가 잇고 그로부터문명한사람이됨으로 부모된자나 교육하는자들은 이것을생각하야 엇던때에는 야만인에게 대하는마음으로 아이를 인도할것이요 또는 반개인과가티 그리고 최후에 완전한사람을대하는마음으로 인도하여야 할것이외다 그쌘아니라 아이의마음은일정한 순서대로 발달하는것이아니요 엇던때에는 지혜가감정보다 압서는때가잇고 엇던때에는정보다의지(意志)─즉생각하는힘이압서는때도잇슴니다 또년령을따라서 마음이변하고긔후의영향을밧는일도만슴니다 가령 이때에는쏫을보고조타던지 실타던지하는것을 쏫의맛이나 향상을보고 정하지마는 차차자라면 빗과형상은 물론이어니와 쏫의성질이라던지 그쏫을 대할때에 긔운과감정을 가지고정하게됨니다 그리고 긔후를따라서녀름에는긔력이적어지고상상(想像)하는힘은 느는것으로부터 첫녀름까지 가장만하집니다 부모된자는 이것을 십분리해하야 인도할것이요 더욱이 청년시대에 데일심한공상(空想)경험한사람들의 눈으로보면 쓸데업는공상이라고 생각하지마는 당자에게는쌔가잇는고로 그러한리상(理想)을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위하야 로력하는쌔가잇는고로 그러한쌔에 그공상을 조흔방면으로 인도하지못하고 만약함부로 그공상을파괴하는것은 쏫을 싹아서 소를죽게하는것과똑갓슴니다

仁川富豪脅迫犯
범인의거처는오리무중

지난삼일에 경성에 근거를둔듯한 ○○단의명의로 인천(仁川)시내모부호에게 현금일만원을 그달십일밤에 경성장충단공원으로가저오라는 사건과 또역시 그달십일에 인천만국공원으로가저오라는 협박장이잇슨후 인천서고등계에서는 눈코뜰사이가업시 각방면에 출동하야활동을 계속중 긔보한 태극현(太極賢)(四四)과 태을산(太乙山)(三七) 두명(형제)이데포되며이상스러운물건이 만히압수됨으로 세간에서는 매우의심스러운 사건으로알고잇섯는데 천긔 두사람은 먼저번 두부호협박사건과연관계가업고 다른사건으로인하야 제령위반(制令違反)출판법위반(出版法違反)사건의 내용은 아직 정식으로판명되지 아니하엿스나 천긔범인이 근근히 긔소되는것이라하며 부호협박범이아니라하면두 부호협박범의거처는 오리무중에 박히고만셈이되겟다더라(인천)

太氏兄弟 不遠起訴
제령위반과 인쇄법위반으로

긔보한 인천서(仁川署) 고등계에서 체포취조중이든 태극현(太極賢)(四○) 태을산(太乙山)(三七)두명(형제)는 그사이에대강취됴를 마치고 인쇄법위반(印刷法違反) 제령위반(制令違反) 사긔(詐欺)등의 죄명으로 불원에 긔소될터이며 따라서 그들의 범죄도 정식으로 발표하리라더라(인천)

虛榮에뜨인 日本人少女
도회에뛰어와 첫길로연극장에

이십오일저녁부터 동산 경찰서보안계(保安係)사무실안에는약 십오륙세가량되여보이는일본소녀한명이 반쯤허트러진 머리칼을합부로매거노코『스토부』에서 『스토부』로 왓다갓다하면서 석탄을피어주고 잇는데아모리보아도 정신에무슨이상이 잇서보이며 눈에는무엇에 주린듯한표정이 가득찻다 그러나 실상은그러치안코

량가집 새악시라한다 그는

일본좌하현(佐賀縣)에원적을두고 경긔도시흥군북면흑석리(始興郡北面黑石里)에와서사는뎡가뎡길(貞加貞吉)의 다섯재쌀『도구요』(一四)라는바나히보다는 퍽숙성한 녀자로서 지난이십사일에 무단히집을나와 서울로올라와서 그날밤에룡산시민관(市民舘)이란련극장에가서 연극구경을하고 그대로그안에서 밤을새인후 그이튼날도여전히 도라가지안코 하는것을 그극장주인 이즐장은 동산서원에게 말하야 곳동산서로 다려다가 방금보호중이라는바 그소녀는 농촌에뭇쳐서 간조한생활을 실혀하야화려한도회에 나가서 살아보겟다는

허영의 꿈을꾸면서상경

하야 첫길에바로극장에서 지내가는배우(俳優)의생활을보고부러워 커도그생활을 해보겟다고 가지도안코 그대로 잇던것이라는데 동산서에서는 방금그부모에게통지하야다려가게한다더라

巨富가窃盜질
수원서에서잡엇다

수색부근전선절도 작년십월일일부터 동십일월구일까지 전후아홉번을 서대문경찰서관내(西署管內)인 신촌역(新村驛)으로부터 수색역(水色驛) 그사이의 뎐선(電線)을 어간 절도는지난십삼일에 수원경찰서(水原署)에데포되여사실을자백하엿는데그는서대문밧합동(蛤洞)일백오십사번디에원적을두고 엿장사로 도라다니는 김거부(金巨富)(三二)라더라

濟衆院長稱頌

목포죽동(木浦竹洞)에 잇는 제중원장임현재(濟衆院長任賢宰)씨는 가난한 환자에게 대하야는종종무료로 치료를식혀주든바 금반에도 사고무친척한 로파황성녀(黃姓女)(六五)가 후병(咽喉病)으로 목안이부어 언어는물론이오 음식까지 먹지못할뿐아니라 엄동설한에 움집차방에서 신음하는것을보고 곳자긔 병원에다려다가 월여나치료를식힌바 근일에는 완치가되엿다는데 황청녀는물론이오 린근인사까지 임씨의칭찬이 자자하다더라(목포)

奇人奇緣 (90)
金浪雲 譯　靈心汕 畫

八○、의심, 번민

『어머니 이편지가대서는영영안오라는 작정가터도 생각되여요』

모친은또 은근히 놀랫다그러나자긔가 놀래는긔색을 보이엇다가는 경호가그러케 간절히부탁하든것이 모다허사가 될터임으로 그는그놀람을 것흐로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러나 경희는마츰 내지안하라고 애를썻다 『너 그러케걱정하지말아라그러다가 병이나나면엇더케하니』 하고모친은 엄버무려 넘기랴하엿다 그러나 경희는마츰 대중이엿슴으로 그말이 필연적(必然的)으로들리엇다 경희는 한참생각하다가『저도 다음배로인도까지갈가요?』하고물엇다 그러나 그러케쉬웁게 갈수도 업는일이고 또보낼수도 업는일이엇다 모친은 힘써다하야위로하고 만류하엿다 하지마는 언제까지든지 이러케지나게될수는 업섯다 날이감을따라 뎡희의가슴속에는 경호가다시는 안오랴고 하는것이아닌가 솜씨잇게 자긔를버린것이 아닌가 하는의심이 점점싸히게되엇다 이러케의심을 가지고잇는까닭인지 그후로 경호에게서 오는편지가 모다 그러한듯하엿다 섬데기로는 남편이 안해에게하는편지가트나 속으로는 역시다른무엇이 잇는것 가탓다더군다나 의심이깁허지게된것은 경호가 써난지넉달만에 뎡희는아들을나서모친과상의하야그이름을호원(浩源)이라고지어가지고 그것을경호에게통지하얏는대경호에게서온 그답장이 자못불만한것이엇다 말하자면 첫아들을 낫스닛가 편지를떼밧블을 슬지라도 즐거움이다하지아니 할것인대그편지가 극히 간단할쑨만아니라 잘길으라는 부탁도업고또 첫이잘나느냐는 걱정도 업스며 어서가서 보고십다든지 이러하야서 가지는못하니 속히사진을보내라든지 반드시 잇서야할말이 한마대도업섯다 이것이진실로 뎡희의가슴속을 더욱히뒤설케하엿다

그후로는 뎡희는다만 번민만할쑨이엇다 그는마츰내 정말로경호가 자긔를 버리는것이라고생각하게되야 모친에게 대한태도도 자연히 달려지게되엇다 여태까지는 경호가마음에걸릴쌔마다 자긔의심중을 모친에게말하며 쏘한뭇기도하야 모친의위로를 밧는것을 다시업는락으로 알앗스나 이제는도모지그런일이업섯다 걱정이 잇스면다만혼자만 번민을하며 어느때에는 방에들어박힌대로 종처럼나오지안는 일도잇섯다 그는혼자 방안에서 우는것이엇다 이러케됨에 모친도 또한의심을 가지게되얏다 엇재서뎡희는 그러케깁히 경호를 의심하게되엇슬가 경호의처음 편지를보앗슬때부터 그는벌서 자긔를버리는것이 아닌가하고 의심하기를 시작하엿다 그러면 그것은언제부터 자긔에게 버리지나아니 할가하고 걱정이되는약점이잇섯던것이 아닌가 약점이아니라 혹은 무슨허물이잇는것이 아닌가 이러케생각을하여보매 아닌게아니라 그런듯한 점이 업는것도아니엇다 혹은뎡희가 경호와혼인을 하기전부터 창배가 살아잇는것을 알고잇섯던것인가 아니 그런줄을알고서 다시 서방을어둘 그러한계집은 아니다 그러면혹 창배가아즉도 살아잇슬지도몰은다하는희미한 의심을가지고잇섯든것이아닌가 그런까닭으로 그는 경호가좁이 상하게떠난것을보고즉시그것을 생각하게되엿것이아닐가 혼인하기 전에도 엇던지 뎡희에게는무슨 비밀이 잇는듯하엿고 또그것을 써보기도 하얏스나 이제 생각하매 아모래도 그런것갓다 혹 나종에 창배가 나타나지아니할가 하는의심이 항상잇섯기쌔문에 그래서자연히 그의태도가항상애매하엿던것이다이러케모친은 여러가지로생각을하엿다

두편의의심이놉하가며마츰내는 세상에흔히잇는 고부간의사홈과가티 충돌이 생길것은분명한일이엇다 그래서 모친은이래서는 안되겟다고 어느날돈에 잇는뎡자에게로편지를하엿다뎡자가트면 오랫동안 뎡희를마타가지고 동생과가티 생각하야자긔집에서시집을보내는것처럼하기까지 하엿스닛가 역시뎡희를잘위로하여줄듯하엿다그래서수일동안놀러오라고편지를하엿다

멍텅구리 련애생활 (48)
긔념사진

(一) 옥매가 사진틀을집어던지니

글세이것이무슨창피한 쏘락는이란말이요

(二) 멍텅이는 주문하얏든사진을차저다가

흥그것분이가 내가삼백댱을미리 주문하여두엇는데 그놈을차저다가 대선전을할걸

(三) 길에지나가는 아이의게주어서

이애세배다니는아이들아 멍텅구리사진 한댱식 가저가거라

(四) 정초에 개시로대선전

멍텅구리 신년만세

만세

이상한집 (二)
[童話]

그남자는나무가만히섯는들(野)을지나서 어둑컴컴한 골작이속으로드러갓슴니다 화련은 이상한데로도간다고 이상히 넉이면서그뒤로 따라가는데 조곰잇다가 훌륭한문압흐로왓슴니다 『내집은여긔이요』하고 남자는말하고서 화련을다리고문안으로드러갓슴니다 문안에는 넓은마당이잇고 정쇄한집이 한가운데 서잇섯슴니다 사면에는 수뎡가튼 물이소사나는샘물이잇고 청청한 나무와아름다운 쏫이만히 잇섯슴니다 『참경치도조키는한곳이다』하고화련은생각하엿슴니다 집안에드러가니 엇던방이든지모다 눈이휘둥구럴만큼 훌륭하엿슴니다 주인이 말하든대로 컴고어엿분아이들이 놀고잇섯습니다 그쌔에 주인은 화련에게향하야 『화련아 너는매일아츰어린애가이러나거던 이압헤잇는 움물에가서 세수를식혀 주어라 세수를다하거던움물두덩에잇는병에서 기름을짜라 눈을씻겨주어라 그러나 네눈은절단코 그기름으로 씨처서는안된다』하고일럿습니다 화련은아츰마다 어린아이얼골을샘물로 씨처주고 그눈을기름으로씨처주엇슴니다 그아이에게는 매일아츰에 압뎡자나무 아래잇는 살진소에게서 우유를짜서 먹이엇슴니다 화련의하는일은어린아이보아주는것과 한가로히 내리쪼이는 양지짝에 안저서 주인의힘부림을하야주고 뜰에잇는 여러가지 과실나무에 손질을 할쑨이엇슴니다

社告

一、支局의名稱　載寧支局

二、支局의位置　載寧郡邑內

三、支局員의職氏名

職	氏名
支局長	鄭德裕
總務	洪淳植
記者	崔永昌
會計	金福鉉
顧問	鄭達裕
顧問	鄭大河
顧問	李健默
顧問	金鍾善

右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 管內에居住하시는愛讀諸彥은新聞購讀及廣告申托等一切를卽交涉하시옵소서

朝鮮日報社白